

# 韓半島南部 倭人の 殘像

- 交流와 共存의 시점에서 -

송원범\*

swb7906@hotmail.com

## Contents

- I. 서론
- II. 한반도남부의 '전방후원분'
- III. 백제와 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 IV. 한반도남부 왜인의 성격
- V. 결론

## Abstract

韓半島と日本列島の間を移動する人々をみる視點は、これまでの上/下關係あるいは支配/被支配の關係からみる國民國家的な立場よりも'人'と'物'の移動についての複眼的な視野を持つことが必要である。これまでの'人'と'物'の移動に関する説明は、古代における韓半島から日本列島への移動のみを重視する見方か、あるいはその逆の立場であることがほとんどであった。

しかしながら、今後は互いに鏡に向かい合って話すような一方的な主張の繰り返しではなく、實際に移動する/した人々の存在とその性格の糾明がもっとも重要なこと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換言すれば、人々の移動に対して上/下あるいは支配/被支配關係のみから固定的に解釋してしまうことは無理な方法論であろう。

韓半島南部の倭人の性格は、百濟との協力をもとに中国の宋に対して東方の覇者の立場を主張しつつ、倭の國內政治勢力に対して優位な立場を主張することにより、宋から「安東(大)將軍、倭國王」という呼称を獲得していった過程から明らかである。

**Key Words** : 韓半島南部經營論、前方後圓墳、百濟、倭、『宋書』

(Theory of administration for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An ancient tomb of a circular shape with a rectangular frontage, Bekjae Age, Japan(Yamato), Books of "Songshu")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교수.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A00014).

## I. 서론

BC3세기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되는 야요이(彌生)시대는 일본열도의 문화 발달 단계에서 처음으로 한반도남부에서 열도로의 사람들의 대량 이주가 확인된다. 이후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는 여러 민족들이 잡거하고 혼거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양태를 잘 보여주는 사료가 『수서』동이전이다<sup>1)</sup>.

다만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를 이동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점은 이제까지의 상하관계 혹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국민 국가적 입장보다는 ‘人’과 ‘物’의 이동에 대한 복안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人’과 ‘物’의 이동에 관한 설명은 고대의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의 이동만 중시한다거나, 혹은 그 정반대의 입장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서로 거울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 같은 논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그 성격의 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이동에 대해 상하 관계 혹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만 고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 한반도와 일본열도와의 사람의 이동과 흔적에 대한 쟁점들을 들여다보자. 우선, 일본학계의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設)’과 ‘남선경영론(南鮮經營論, 이후 한반도남부경영론)’에 대하여 살펴본다. 스에마쓰(末松保和)는 ‘임나일본부’에 대해 야마토(大和) 왕권의 지배기관, 이른바 출장기관(出先機關)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야마토 정권은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의 약 200년간에 걸쳐 임나(任那)지역에 ‘임나일본부’를 두어 직할 지배체제를 구축하였고,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간접지배체제를 실시하였다”고 한다.<sup>2)</sup> 바로 이것이 이른바 ‘한반도남부경영론’인 것이다. 그가 증거로서 제시한 것들은 『일본서기』의 신공기 49년조의 신라정토기사와 가야7국 평정기사<sup>3)</sup>를 전제로 하여 [칠지도], [광개토왕능비문], 『송서』왜국조 등의 금석문과 중국 사료를 이용한 것들이었다.

1) 『수서』동이전의 신라조 참조.

2) 末松保和(1949) 『任那興亡史』大八洲出版、1949(再版、吉川弘文館、1956) 참조.

3) 『일본서기』의 신공기 49년조 참조.

한편, 스에마쓰의 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반박들은 거의 모두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대응논리가 대부분이다. 먼저, ‘기구, 기관설’은 지배 혹은 통치를 위한 기구와 기관으로서, 야마토 왕권, 분국, 가야 거주 왜인, 규슈의 왜인, 백제군사령부라는 입장. 그리고 교역 혹은 외교를 위한 기관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야마토 왕권과 가야, 규슈의 왜와 가야, 백제와 왜 혹은 가야제국, 남부가야제국, 안라라는 입장. 나아가 합의체, 외교 교섭단체, 정치집단이라는 입장에는 왜, 임나, 백제를 주체로 한 입장과 가야제국 합의체에 야마토 왕권의 관료가 참여한다는 입장, 그리고 야마토 왕권과 가야제국 왕이라는 입장과 야마토 왕권이 파견한 왜신이 중심이 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신, 관인의 집단으로 보는 설에는 야마토 왕권의 사자, 혹은 야마토 왕권, 백제, 신라의 사신이라는 입장, 그리고 규슈의 관인이라는 입장과 야마토 왕권의 관인이라는 의견도 있다.<sup>4)</sup>

단,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이러한 ‘임나일본부설’과 ‘한반도남부경영론’이 같은 층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임나일본부’의 존재와 성격을 둘러싼 논쟁 끝에 ‘임나일본부’의 존재가 부정되었다고 해서 ‘한반도남부경영론’이 극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역시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한 왜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들의 존재 이유와 성격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 ‘한반도남부경영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sup>5)</sup>

두 번째로, ‘삼한삼국분국론(三韓三國分國論)’에 대해서 이다. 이 설은 김석형<sup>6)</sup>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야마토 왕권이 ‘임나일본부’를 통해 지배했었다고 하는 백제, 신라, 가야 등은 실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일본열도로 이주한 집단이 건국한 ‘분국’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임나일본부’는 원래 일본열도 내의 여러 한반도계 분국을 통치하는 기관이었는데, 『일본서기』의 편찬자가 위의 사실을 야마토 왕권과 한반도 본국에 소재한 삼한, 삼국과의 관계인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4) 나행주(2005) 「6세기 한일관계의 연구사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논집3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p.19-48 참조.  
5) 김현구(1993) 『任那日本府研究-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 일조각 참조.  
6) 김석형(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평양) 참조.

서는 일본열도 내에 수많은 존재하는 한반도 관련의 흔적들이라고 한다.

제국의 발전 단계가 삼한 이후에 삼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삼국 시대 때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한과 진한에까지 야마토 왕권이 군사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야마토 왕권의 주장은 한반도 내의 사실이 아니라 일본열도 내의 중앙과 지방에 합당한 발상이라는 데 있다. 다만, 고대일본의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일본열도 내에 진출한 한반도인들에 관한 문제라는 해석은 관련 자료를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스에마쓰설을 거울에 비춘 것과 같은 것이다.<sup>7)</sup>

그런데 이상의 번잡한 설들은 크게 나누면 한반도에서의 왜인의 활동인가 아니면 일본열도에서의 한반도인들의 활동인가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해 전자가 이른바 ‘한반도남부경영론’을 설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주장이라면, 후자는 역으로 소위 ‘일본열도경영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종래의 방법론에 서자면 한반도에서의 왜인의 활동 자체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는 난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의 인간집단의 왕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지배, 통제’와 ‘관리’라는 시점에서 주로 분석해 왔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시점은 아무래도 외부로부터의 인간에 대해 중앙집권국가의 시선에서 복속하는 대상으로서의 인식하는 것이고, 또 이를 상하관계 혹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에 발생한 수많은 인간왕래의 역사에는 ‘지배, 통제’와 ‘관리’만이 아닌 ‘교류’와 ‘공존’의 역사도 동시에 존재했을 것이다.<sup>8)</sup>

이상과 같이 지역을 넘어 이동하는 인간들의 ‘교류’와 ‘공존’의 관점에서 한반도 남부의 왜인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과제이다. 먼저, 한반도 남부 그 중에서도 한반도 남부의 서쪽, 즉 구 백제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일본식 묘제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의 피장자에 대한 종래의 성과를 통해 이 지역과 피장자의 관계를 조망한다. 그 다음으로는 백제와 왜를 둘러싼 국

7) 김현구(2010)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pp.173-174 참조.

8) 송완범(2009) 「日本律令国家的 百濟郡・高麗郡・新羅郡에 보이는 交流와 共存」, 『사총』 68, p.36 참조.

제정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백제 지역의 일부인 그것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지역에서만 왜의 고대식 묘제가 그것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이라는 특정 시기에만 출현하고 마는 것은 백제와 왜의 어떤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5세기를 중심으로 한 전후의 시기가 주목되는데, 5세기의 사료라면 대표적인 것이 『송서』왜인조이다. 『송서』왜인조에 보이는 백제와 왜국의 상호관계를 복안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실제로 활동했을 왜인의 성격에 대해 살펴볼 작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한반도남부에서의 왜인의 ‘교류’와 ‘공존’의 실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 II. 한반도남부의 ‘전방후원분’

일본고대사에서 전방후원분 연구<sup>9)</sup>는 독특한 연구 분야이다. 일본사에서는

- 9) 近藤義郎(1998)『前方後円墳の成立』岩波書店. 広瀬和雄(2003)『前方後円墳国家』角川書店大. 久保徹也 외(2009)『死の機能 前方後円墳とは何か』岩田書院. 上田宏範(1972)『前方後円墳』学生社. 都出比呂志(2005)『前方後円墳と社会』塙書房. 沼沢豊(2006)『前方後円墳と帆立貝古墳』雄山閣. 広瀬和雄編(2005)『前方後円墳とちりめん街道』昭和堂. 一瀬和夫(2005)『大王墓と前方後円墳』吉川弘文館. 荒井登志夫(2005)『前方後円墳の世紀』歴研. 近藤義郎(2005)『前方後円墳の起源を考える』青木書店. 白石太一郎編(2001, 2005)『終末期古墳と古代国家』吉川弘文館. 甘粕健(2004)『前方後円墳の研究』同成社. 滋賀県立安土城考古博物館(2004)『日は人作り、夜は神作る：前方後円墳の出現と展開』石野博信 編(1999)『前方後円墳の出現』雄山閣出版. 泉武 외,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編集(2001)『大和前方後円墳集成』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編(2001)『大和前方後円墳集成』学生社. 近藤義郎(2001)『前方後円墳に学ぶ』山川出版社. 近藤義郎(2000)『前方後円墳観察への招待』青木書店. 都出比呂志(2000)『王陵の考古学』岩波書店. 上田宏範(1969)『前方後円墳』学生社. 森浩一(1985)『巨大古墳：前方後円墳の謎を解く』草思社. 近藤義郎(1998)『前方後円墳の成立』岩波書店. 近藤義郎(1998)『前方後円墳と弥生墳丘墓』新装版 青木書店. 東北関東前方後円墳研究会編(1996)『東北・関東における前方後円墳の編年と画期』大和岩雄(1983)『天照大神と前方後円墳の謎』六興出版. 帝塚山考古学研究所編(1991)『前方後円墳を考える』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 編(1981)『磯城・磐余地域の前方後円墳』石川昇(1989)『前方後円墳築造の研究』六興出版. 宮崎県 編(1997)『宮崎県前方後円墳集成』岡内三真 編(1996)『韓国の前方後円形墳』雄山閣出版. 埋蔵文化財研究会편(1995)『前期前方後円墳の再検討』金閔恕. 置田雅昭 編(1995)『古墳文化とその伝統』勉誠社. 近藤義郎(1995)『前方後円墳と弥生墳丘墓』青木書店. 近藤義郎 編(1991)『前方後円墳集成 東北・関東編 - 補遺編』山川出版社. 石野博信외編(1990)『地域の古墳 1

BC3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벼농사와 금속기를 사용한 야요이(彌生) 시대의 종료와 함께 야마토(大和) 지역을 중심으로 정권의 추이가 전개된 4세기부터 6세기까지를 ‘야마토 정권’ 혹은 ‘야마토 왕권’의 시기라 부른다. 그리고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8세기의 일본율령국가가 그 국가이념을 담아 편찬한 관찬사서인 『일본서기』이다. 이 『일본서기』는 이후 일본사에서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대해 가졌던 ‘일본중심주의’의 원형으로서 받아들여진다.<sup>10)</sup>

한편, 4세기부터 6세기의 ‘야마토 정권(왕권)’의 시기를 고고학적 관점에서는 ‘고분의 시기’ 특히 해당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고분인 전방후원분을 따서 ‘전방후원분의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일본고대사를 문헌사료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는 즉, 좀 더 다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남부의 전방후원분에 관한 연구<sup>11)</sup>는 고대 한반도인들과 외국의 왜인들과의 접촉과 교류의 흔적으로서 일본율령국가가 그 국가이념을 담아 편찬한 관찬사서인 『일본서기』에 담겨있는 對한반도 인식의 결정체로서의 ‘임나일본부’의 증거라는 주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일조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왜인의 흔적이란 절대 생

西日本, 2 東日本』 雄山閣. 光岡雅彦(1979) 『支石墓の謎：前方後円墳・「天皇」の源流』 学生社. 白石太一郎編(1989) 『古墳』 吉川弘文館. 小沢一雅(1988) 『前方後円墳の数理』 雄山閣出版. 茂木雅博(1987) 『墳丘よりみた出現期古墳の研究』 雄山閣. 近藤義郎(1983) 『前方後円墳の時代』 岩波書店. 森浩一編(1986) 『前方後円墳の世紀』 中央公論社. 참조.

- 10) 송완범(2009) ‘일본율령국가’와 ‘일본중심주의’-『日本書紀』를 중심소재로 하여,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별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pp.27-65 참조.  
 11) 박천수(2007) 『새로 쓰는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동, 『加耶と倭：韓半島と日本列島の考古学』 講談社.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한국고고학사전 상·하』. 박순발 외(2000)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학교출판부, 朝鮮学会編 『前方後円墳と古代日朝関係』 同成社. 강인구(2001) 『한반도의 전방후원분논집 1983-2000』 동방미디어. 전호천(1991) 『前方後円墳の源流：高句麗の前方後円形積石塚』 未来社. 강인구(1987) 『舞妓山 과 長鼓山：한국의 전방후원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森浩一 編(1984) 『韓國の前方後円墳：松鶴洞一号墳問題について』 社会思想社 등이 있다.

그 외 최근에鈴木靖民編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2008이 간행되었는데, 第三篇 「古代朝鮮の前方後円墳と日本の古墳文化」의 여러 논문이 유익하다. 그리고 연구사 정리로는 김태식 「고대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2010) 『한일관계사연구논집』2 고대왕권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이 편리하다. 본고에서의 한반도남부의 전방후원분에 관한 연구 경향은 위의 두 책에 힘입은 바 크다. 많은 참고를 바란다.

각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한반도남부경영론’의 무조건적 부정이라는 토라우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탈출구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한반도남부의 전방후원분에 관한 연구는 본고가 중시하려고 하는 ‘교류’와 ‘공존’의 시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일본식 묘제인 전방후원분(전방후원분형 고분이라고도)이 전라남도의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10여기 정도가 보고되었다. 그 크기는 30미터 전후의 것으로부터 80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어 다양하며, 형태와 내부구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축조시기에 관해서는 출토유물과 무덤 내부의 구조로부터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들이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관련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분 자체의 조형 방법에 대해서 보면 토착 기술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무덤 내부구조 중에 횡혈식 석실이 발견되는데 이는 북九州(北九州)의 초기횡혈식 석실과 닮아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남부의 전방후원분과 일본 북九州와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기도 한다.<sup>12)</sup>

<그림 1>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sup>13)</sup>



12) 鈴木靖民 編(2008), 앞의 책. 朴天秀「梁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円墳からみた古代の韓半島と日本列島」、pp.397-414. 권오영, 「고고학자료로 본 백제와 왜의 관계-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한일관계사연구논집2 왜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p.251-267 참조.

13) 우재병(2004) 「영산강 유역 전방후원분의 출현과 그 배경」, 『호서고고학』10, p.66 참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견된 전방후원분에 대해서는 먼저 무덤의 피장자와 이를 둘러싼 집단거주의 흔적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약 1세기라는 제한된 시대에 특이한 무덤형식으로 등장하였다가 사라진 무덤들의 피장자와 집단거주의 흔적에 대해서는 크게 ‘왜인설’과 ‘재지토착세력설’로 나뉜다. 전자의 왜인설 중에는 왜왕권에서 직접 파견된 왜인이라는 견해, 백제의 요청에 따라 왜 중에서도 특히 북구주의 왜로부터 파견된 왜인이라는 견해, 일본에서 망명한 마한계의 왜인설 등이 있다. 후자에는 마한 잔여의 토착재지세력이 매장주체라고 주장한다.<sup>14)</sup> 한편 마한설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시점에서 영산강 지역은 발굴조사 결과 백제에서 위신재를 사여하는 방식의 지배방식이라는 것이 정설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하는 의견도 있다.<sup>15)</sup>

요컨대, 전자의 왜인설은 물론 후자의 토착재지세력을 무덤의 피장자로 생각하는 견해도 그 근거가 왜와의 교류 속에서 얻어진 무덤 양식이라고 보는 관점에 선 이상 한반도와 일본열도와의 접촉과 교류의 산물임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사람의 사망에 따라 진행되는 장묘문화는 그 지역 특유의 종교의식이나 관습과도 어우러져 보수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보수성은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고대일본에서 유래된 특이한 분묘형태인 전방후원분이 한반도의 삼국 중 백제 지역의 일부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 건너온 왜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 그들의 일부가 부장된 것이 바로 왜식 장묘문화의 일종인 한반도 서남부의 전방후원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sup>16)</sup>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왜식 장묘문화의 한 형태인 전방후원분이 왜 백제 지역의 그 중에서도 서남부의 일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전방후원분이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이라는 한정된 시기에만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역시 백제와 왜국의 어떤 특수한 사정

14)鈴木靖民 編(2008), 앞의 책. 第三篇「古代朝鮮の前方後円墳と日本の古墳文化」 pp.397-540.

김태식(2010), 앞의 논문, pp.83-88 참조.

15) 우재병(2004), 앞의 논문, p.69 참조.

16)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의 피장자를 왜인으로 보는 설은 朴天秀(2008), 앞의 논문, pp.405-410 참조.



을 배경으로 설명해내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백제지역의 일부에서 또 일정 시기에만 발견되는 전방후원분의 존재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속의 백제와 왜국과의 대외관계를 통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한반도 남부의 전방후원분이 출현하고 전개되는 시기인 5세기를 중심으로 그 전후의 시기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시점을 바탕으로 백제와 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 Ⅲ. 백제와 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먼저 중국대륙에서는 3세기에 후한이 멸망한 후 6세기 말에 수가 성립하기까지 서진의 짧았던 통일기를 제외하고 길고 긴 분열의 시대가 계속한다. 4세기 이후의 화남 지방에서는 한족의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고, 화북 지방에서는 북방의 여러 종족에 의한 왕조가 흥망 하는 양상이었다. 그것은 분열로부터 통합 혹은 집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중국을 창출하는 도정이기도 했다.

한편 중국대륙의 주변 지역에서는 동방의 고구려·백제·신라·가야와 왜국이 고대국가의 건설을 진행시켜 간다. 그 과정은 이상의 각국이 남북조의 여러 왕조들에게 사절을 보내 교역을 통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쟁을 통한 긴장관계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바로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기도 했던 셈이다. 요컨대 5세기를 전후하는 시기는 새로운 동아시아가 탄생하는 전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그런 점에서 먼저 5세기의 백제와 왜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개관할 필요가 있다. 399, 400, 404년 [광개토왕능비문]의 기사<sup>18)</sup>로부터 왜가 한반도 남부의 정세에 관여하면서 고구려와 대립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위의 일

17) 김태식(2010) 「고대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집위원회 편 『한일관계사연구논집12 고대왕권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p.1-146 참조.

18) [광개토왕능비문] 영락9년 기해조, 동 10년 경자조, 동 14년 갑신조 참조.

련의 기사는 [광개토왕능비문]의 396년의 기사<sup>19)</sup> 즉, 고구려의 전쟁 행위의 상대편에 백제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와 대립각을 세우는 왜의 일련의 행동은 백제와 관계있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404년 기사로부터는 왜국이 한반도 남부를 통과하여 지금의 황해도인 ‘帶方界’까지 이르러 고구려군과 싸우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한반도 내륙 깊숙이 진출한 왜의 활동은 백제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종래의 연구는 한반도 남부를 왜가 점수한 증거<sup>21)</sup> 혹은 백제를 주로 왜국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의견<sup>22)</sup>, 또한 가야 세력의 활동 속에 왜의 존재를 포함하여 이해<sup>23)</sup>하려는 입장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여러 사료에 보이는 南蠻(『일본서기』신공기49년조), 東道(『일본서기』현종기 3년 시세조), 東韓(『일본서기』응신기8년조, 동 16년조) 등의 방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백제를 주로 하고 왜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5, 6세기에 나타나는 왜의 세력은 신라와 적대관계<sup>24)</sup>를 시종여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 남부의 왜의 활동은 백제와의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 당시의 한반도 남부의 정세는 중국대륙의 혼란과 동반하여 한반도 3국 중 중국왕조들과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던 고구려가 먼저 행동을 일으키는 것에 의해 격변한다. 이것이 바로 이후 고구려가 일관되게 취한 남하 정책이다. 고구려의 남하는 서로 경쟁하던 백제와 신라로 하여금 연합의 길을 모색하게 한다.<sup>25)</sup>

특히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맞서는 일환으로 신라만이 아니라 후방의 왜와의 교섭을 추진하는데, 왜국과의 외교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왕의 근친자를 파견하는 전통의 질<sup>26)</sup> 외교를 구사한 점이다. 이는 바로 전지의 외교에서 보인

19) [광개토왕능비문], 영락6년 병신조 참조.

20) 김현구(2009) 「5세기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왜의 실체」 『일본역사연구』29집, pp.5-30 참조.

21) 末松保和(1949)의 앞의 책. 참조.

22) 김현구(2009), 앞의 논문 참조.

23) 김태식(2010), 앞의 논문 참조.

24) 강중훈(2005) 「삼국사기에 보이는 왜의 성격」 『한일관계사연구논집1 광개토대왕비와 한일 관계』 경인문화사 참조.

25) 『삼국사기』 백제본기 비유왕7년조 참조.

26) 나행주(1996) 「古代朝・日關係における「質」の意味-特に百濟の「質」の派遣目的を中心として-」 『史觀』 134, pp.19-20 참조.

다.<sup>27)</sup> 그리고 이러한 질 외교는 7세기 때의 풍장<sup>28)</sup>을 질로 파견한 것과는 유사하다. 이러한 왕의 근친자를 파견하여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백제가 긴급한 외교적 과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던 외교술이다.

그럼 먼저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475년의 고구려에 의한 백제의 국도인 한성 점령이다. 이 백제의 한성 함락은 백제의 멸망에 비견될 만한 것으로 백제는 도읍을 지금의 공주로 옮긴다. 이러한 5세기 후반에 보이는 백제의 한성 함락과 공주 천도를 둘러싼 각국의 여러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중국 측 사료인 『宋書』<sup>29)</sup>이다.

다음은 왜 5왕의 외교 행태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송서 속의 왜의 외교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1> 왜 5왕의 對 중국왕조 외교활동

번호	중국왕조	시기	왜왕	내 용	출 전
1	동진	의희9(413)	찬	동진에 조공	『진서』 안제기, 『태평어람』
2	송	영초2(421)	찬	조현하고 무제로부터 제수	『송서』 왜국전
3	송	원가2(425)	찬	문제에게 공물	『송서』 왜국전
4	송	원가7(430)	찬	안제에게 공물	『송서』 안제기
5	송	원가15(438)	진	(1)제 스스로 ‘사지절도독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육국제군사안동대장군왜국왕’ (2)‘안동장군왜국왕’ (3)13인에게 장군호	(1)『송서』 왜국전 (2)『송서』 문제기 (3)『송서』 왜국전
6	송	원가20(443)	제	‘안동장군왜국왕’	『송서』 왜국전

27) 『일본서기』 응신기8년조, 『삼국사기』 백제본기 아신왕 6년5월조 참조.  
 28) 송완범(2005) 『7世紀の倭国と百濟』 『日本歴史』686号, pp.1-13 참조.  
 29) 『宋書』는 중국 남조의 송에 대해 쓰인 역사서이다. 宋·齊·梁에서 벼슬한 沈約이 제의 무제에게서 명을 받고 편찬했다. 책의 구성은 본기10권·열전60권·지30권의 합계 100권인 기전체로 24서의 하나이다. 본기와 열전은 1년 정도로 완성했지만, 지가 완성되는 데에는 10년이 더 걸려 결국, 완성은 양대에 들어서였다. 송이 멸망하고 곧이어 아직 많은 관계자의 생존 중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동시대 자료를 많이 수록하고 있고, 자료적 가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이만전」의 기술 속에서 왜의 5왕이라고 불리는 고대일본의 지배자들이 연이어 조공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어 동 시대 일본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다.

7	송	원가28(451)	제	(1) '사지절도독왜신라임나가라 진한모한육국제군사'를 가호 (2) '안동대장군' (3) 23인에게 軍과 郡에 관한 칭호	(1) 『송서』 왜국전 (2) 『송서』 문제기 (3) 『송서』 왜국전
8	송	대명4(460)	제	견사하여 공물	『송서』 왜국전
9	송	대명6(462)	홍	홍을 '안동장군왜국왕'	『송서』 효무제기, 왜국전
10	송	송명1(477)	홍(무)	(1) 견사하여 공물 (2) 무는 스스로 '사지절도독왜백 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칠 국제군사안동대장군왜국왕'	(1) 『송서』 순제기 (2) 『송서』 왜국전
11	송	송명2(478)	무	무가 스스로 '개부의동삼사'라 하자 순제가 '사지절도독왜신라 임나가라진한모한육국제군사안 동대장군왜왕'로 제수	『송서』 순제기, 왜국전
12	남제	건원1(479)	무	왜왕 무를 진동대장군에	『남제서』 왜국전
13	양	천감1(502)	무	왜왕 무를 정동대장군에	『양서』 무제기

이상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이다. 우선 첫째로, 413년부터 502년까지의 약110년에 걸쳐 찬·진·제·홍·무의 왜의 5왕<sup>30)</sup>이 중국의 4왕조(동진, 송, 남제, 양)에 조공한 기록이며, 왜와 송왕조와의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기보다 왜국전의 기록에 관련 사료가 많으며 원가 연간의 기록이 5회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왜의 주장 중에 7국에 들어가는 백제가 송의 제정 중에는 빠지고 그 대신에 가라가 대신 삽입되고 있는데, 이 가라는 여러 가야의 총칭으로 여겨진다.<sup>31)</sup>

이 같은 지견을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위 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송서』이만전의 동이 왜국조에 나타나는 왜의 주장의 배경과 왜의 주장을 중국의 송은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30) 왜 5왕의 견사 기록이 『古事記』 『日本書紀』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야마토 왕권의 대왕이 왜의 5왕과 같은 讚, 珍, 濟, 興, 武 등 한 자로 된 중국풍의 이름을 칭하고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 5왕은 야마토 왕권의 대왕이 아니고 규슈(九州)에 바탕을 둔 규슈왕조라는 설도 있다. 古田武彦 編(1987) 『邪馬壹国から九州王朝へ』 新泉社 참조.

31) 김현구(2009), 앞의 논문, pp.20-22 참조.

[사료] 『宋書』권97, 열전57 이만진 등이 왜국조

가) 倭國在高驪東南大海中、世修貢職。高祖永初二年、詔曰：「倭讚萬里修貢、遠誠宜甄、可賜除授。」太祖元嘉二年、讚又遣司馬曹達奉表獻方物。

나) 讚死、弟珍立、遣使貢獻。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表求除正、詔除安東將軍、倭國王。珍又求除正倭隋等十三人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號、詔並聽。

다) 二十年、倭國王濟遣使奉獻、復以為安東將軍、倭國王。二十八年、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如故。并除所上二十三人軍郡。

라) 濟死、世子興遣使貢獻。世祖大明六年、詔曰：「倭王世子興、奕世載忠、作藩外海、稟化寧境、恭修貢職。新嗣邊業、宜授爵號、可安東將軍、倭國王。」

마) 興死、弟武立、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바) 順帝昇明二年、遣使上表曰：「封國偏遠、作藩于外、自昔祖禰、躬擐甲冑、跋涉山川、不遑寧處。東征毛人五十國、西服衆夷六十六國、渡平海北九十五國、王道融泰、廓土遐畿、累葉朝宗、不愆于歲。臣雖下愚、忝胤先緒、驅率所統、歸崇天極、道逕百濟、裝治船舫、而句驪無道、圖欲見吞、掠沙邊隸、虔劉不已、每致稽滯、以失良風。雖曰進路、或通或不。臣亡考濟實忿寇讎、壅塞天路、控弦百萬、義聲感激、方欲大舉、奄喪父兄、使垂成之功、不獲一篲。居在諒闇、不動兵甲、是以偃息未捷。至今欲練甲治兵、申父兄之志、義士虎賁、文武效功、白刃交前、亦所不顧。若以帝德覆載、摧此強敵、克靖方難、無替前功。竊自假開府儀同三司、其餘咸各假授、以勸忠節。」 除武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

이 사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이다. 우선 첫 번째로, 고구려가 왜의 위치 기준(倭國在高驪東南大海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송이 동방의 여러 나라들 중 고구려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고, 사료 바의 무왕의 상표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왜의 고구려에 대한 강한 대립의식(而句驪無道)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왜의 주장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6국과 7국의 주장에는 438년(진왕)의 주장에 대한 결과가 451년의 결과(제왕)로 나타났고, 또한 477년의 주장(흥왕)의 결과가 478년의 결과(무왕)

로 나타났다. 이것은 왜의 자기주장에 대한 송의 나름의 응답일 것이다.

그럼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왜는 송에 대해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까지는 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왜의 자의적 주장이라는 식으로 무시해버린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왜가 계속 주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송의 대응은 왜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그렇다면 결국 왜의 주장의 정당성 유무가 그 주장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왜가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을 자신의 세력권이라고 주장한 데는 이상의 여러 세력과의 과거의 접촉에 의한 경험에 유래하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sup>32)</sup>

이상의 여러 세력 중 먼저, 백제와 신라를 왜의 주장에 넣고 있는 것은 왜의 현상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것일 것이다. 특히 백제를 필두로 한반도 남부 전역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고구려의 남하에 따른 백제와 신라의 나아가서는 임나와 가라 지역의 여러 세력이 앞 다투어 왜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입장을 왜가 간파하고 있던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진한, 모한을 자신의 세력권이라고 주장하는 왜의 근거는 아직 백제의 세력이 미치기 전의 한반도 남부의 해안가는 물론 다도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여러 섬에 흩어져 아직 잔존하던 진한, 모한의 옛 세력과의 접촉 경험이 밑바탕에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이상의 두 가지 점, 즉 고구려의 남하에 따른 백제와 신라 그리고 임나와 가라 지역의 사정의 급박함과 아직 한반도 남부의 해안가와 다도해에 잔존하는 모한, 진한의 옛 세력과의 접촉이 왜로 하여금 송에게 자신의 세력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마지막 세 번째로 왜의 궁극적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었던가? 혹은 중국의 송이 왜에 결국 허락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하면 바로 그것은 [安東(大)將軍, 倭國王]에 아니었던가 여겨진다. 이는 위 사료의 나, 다, 라, 마, 바의 다섯 군데의 밑줄 친 곳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왜가 7국을 주장하였든 6국을 주장하였든간에 왜는 즐기차게 [安東(大)將軍, 倭國王]을 주장한 것이고, 송은 이에 대해 그리 화답해 준 것이라는 점이다.

32) 김현구(2009), 앞의 논문, pp.23-28 참조.

사료 나에 의하면 왜는 송에 대해 최초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송은 [安東將軍, 倭國王]만 허가하고 있다. 이어 사료 다에서도 [安東將軍, 倭國王]에 머무는데 그치고 있다. 그 상황은 사료 라에 이르러도 변함이 없고, 결국 사료 마의 단계에 이르러 무왕이 앞 단계보다 상위 자리인 [安東大將軍, 倭國王]을 주장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강렬한 대립의식을 노출(‘句驪無道’)하는데, 결국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었는지 드디어 사료 바처럼 [安東大將軍, 倭國王]을 정식으로 제수 받고 있다.

요컨대, 동방의 대표자로서의 자리매김이 ‘安東(大)將軍’에 보이는 것이고, 또 국내 정치세력의 대표자로서의 위상이 투영된 것이 바로 ‘倭國王’인 것이다. 나가 야마토 왕권으로서는 국내 여러 정치세력에게도 송의 관작을 나누어줄 필요성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바로 사료 나(倭隋等十三人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號、詔並聽)와 사료 다(并除所上二十三人軍郡)에 보이는 바와 같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는 한 당시의 왜 5왕의 주장을 생각하는데 있어 7국과 6국 문제에만 너무 관심이 집중되어 버리는 종래의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IV. 한반도남부 왜인의 성격

지금까지 고대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를 왕래하며 활동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본 측의 입장과 한국 측의 연구 성과가 판이하게 달랐다. 전자는 이른바 ‘한반도남부경영론’의 시점에서 후자는 소위 ‘일본열도경영론’의 시점에서 있었다. 그 위에 한반도 남부의 왜인의 흔적들은 백제 아니면 가야의 세력 범위 내의 활동일 것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들이 자리 잡은 데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의 인간집단의 왕래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지배, 통제’와 ‘관리’라는 시점에서 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거나 상하관계로 보는 시점, 그러다 보니 서로 상대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점만이 살아남았다. 결국, 이러한 시점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인간에 대해 중앙집권국가의 시선에서 복속하

는 대상으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또 외부로부터의 인간에 대해 상하 관계나 지배와 피지배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대 이래의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적 경험의 전제 혹은 불식이라는 선언적 명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에 발생한 수많은 인간왕래의 역사에는 ‘지배, 통제’와 ‘관리’만이 아닌 ‘교류’와 ‘공존’의 경험도 반드시 존재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고대 한반도 남부의 왜인의 존재와 그 활동에 주목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한반도 남부 왜인 활동의 증거는 무어라고 해도 왜에서 유래된 고분 형태인 전방후원분의 존재이다. 한반도 남부의 일부,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10여 기의 전방후원분은 그 고분의 형태나 유물, 유구, 건축 형태 등에 따라 아직 피장자에 대한 논의가 갑론을박이지만, 장묘 문화의 보수성이나 여러 성과들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왜인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방후원분이 존재했던 시기인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기의 시점이 주목된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시기가 전방후원분 출현의 시기인 5세기이며, 이 5세기의 가장 중점 사료가 바로 중국 송왕조의 정사인 『宋書』이만전이다. 이 사료에는 당시의 동아시아의 동방의 여러 나라들의 정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만전의 왜국조에는 왜가 생각했던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에 대한 대외, 대내 방침이 실려 있다.

『宋書』를 중심으로 같은 연대의 다른 사료들에 의하면 동아시아는 중국의 분열 과정에 즈음한 변화들이 동방으로 미치면서 고구려를 자극했다. 이에 고구려는 남하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에 의해 백제와 신라, 가야 세력은 후방의 왜와의 접촉을 바라게 되고 결국 이것이 왜인 세력의 한반도 출현인 것이다. 그런데 왜의 한반도 세력과의 접촉의 중심은 [광개토왕능비]와 『일본서기』, 『삼국사기』를 보는 한 백제와의 접촉이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5세기 한반도 왜인의 성격은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따른 고구려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한 백제의 선택 속에서 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宋書』속의 왜의 주장은 송에 대한 대외적 메시지는 물론, 왜 자체 내부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대내외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왜의 주장은 결국 [安東



(大)將軍, 倭國王]의 칭호에 대한 짐착과 획득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 칭호를 얻어내는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경험이 바로 한반도 남부에서의 왜인의 활동의 요체인 것이다.

## V. 결론

이상의 지견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그 성과를 적시한다.

먼저,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전방후원분은 5세기 백제와 왜의 교류의 산물로서 왜인에 의한 시설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백제와 왜를 둘러싼 5세기의 국제정세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함께 고구려의 남하, 그리고 이에 따른 한반도 남부 세력의 동요로 인한 왜인의 활동으로 설명된다. 동시대 여러 사료로부터 왜인의 활동 무대는 백제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진다. 부연하자면 그 활동의 성격은 백제가 주이고 왜가 종인 형태로 나타난다.

세 번째로, 한반도 남부의 왜인의 성격은 백제와의 협력 속에 송에게는 동방의 패자를 주장하는 한편, 국내 정치 세력들에게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安東(大)將軍, 倭國王]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상과 같은 성과는 지배와 통제, 그리고 관리와 차별이 아닌 ‘교류’와 ‘공존’의 시각 속에서 고대 한일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적지 않다. 본 사업이 의도했던 ‘집단지주지’와 ‘동아시아’라는 주제는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 이 주제의 확장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현구(1993) 『임나일본부연구』 일조각, pp.1-194.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편(2005) 『한일관계사연구논집1 광개토왕비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p.1-321.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편(2005) 『한일관계사연구논집2 왜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p.1-398.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2005) 『한일관계사연구논집3 임나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p.1-268.

広瀬和雄(2007) 『古墳時代政治構造の研究』 塙書房, pp.5-35, pp.427-458.

鈴木靖民 編(2008)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勉誠出版, pp.397-543.

김현구(2009) 「5세기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倭의 実体」 『일본역사연구』29집, pp.5-30.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2010) 『한일관계사연구논집12 고대왕권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p.1-146.

김현구(2010)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pp.15-194.

❖ 투고일 : 2010. 12. 31.

❖ 심사일 : 2011. 01. 31.

❖ 심사완료일 : 2011. 02. 10.